

LG 만나는 KIA, 이번주 가을야구 굳힌다

KT와 2연전 1승 1패...임기영 컨디션 난조 마운드 운영 새 변수
6위 LG와 승차 2게임 유지...주말엔 4승 9패 열세 한화와 일전

‘5위 굳히기’에 나선 KIA 타이거즈가 수비에 발목 잡혔다.

KIA가 26일 수원 위즈 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2-9패를 기록했다. 이날 5위 KIA와 6위 LG 트윈스는 나란히 패하면서 2경기 차를 유지했다.

KIA ‘잡수함’ 임기영과 kt의 ‘고졸 루키’ 김민이 맞대결은 1회 일찍 흐름이 갈렸다. 수비가 승패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됐다.

김민이 첫 상대 베나디나에게 연달아 볼 3개를 던지면서 경기를 출발했다. 4구째 첫 스트라이크 이후 베나디나가 5구째 공을 건드렸지만 중견수 플라이가 됐다.

2번 타자 이병기가 중전 안타에 이어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신인 흔들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형우의 날카로운 타구가 우익수 유한준의 글러브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안지홍이 볼넷으로 다시 분위기를 살렸지만 이번에는 김주찬이 1루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1회초가 종료됐다.

1회말 첫 수비부터 빠졌다.

kt 선두타자 강백호의 느린 타구가 유격수 최원준 앞으로 향했다. 최원준이 한 번 공을 더듬는 사이 강백호가 1루에 먼저 도착하면서 내야안타가 기록됐다. 2번 심우준의 타석에서 더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

1루에 있던 강백호가 스타트를 끊었고 피치아웃을 한 포수 김민식이 빠르게 2루로 송구를 했다. 넉넉하게 아웃이 되는 것 같았지만 공을 잡은 최원준이 태그를 하지 못하면서 강백호의 시즌 2호 도루가 작성됐다.

최원준의 실수 연발 속에 임기영도 침착하게 마운드를 깔고 가지 못했다.

심우준의 우측 2루타로 선제 실점을 한 임기영은 유한준에게도 우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2번째 점수를 내줬다. 그리고 무사 1루서 4번 로하스에게 던진 132km짜리 직구가 우중간 담장을 넘어갔다. 로하스의 시즌 40번째 홈런. 이 홈런으로 올 시즌 KBO리그에는 두산 김재환(44홈런), 넥센 박병호(40홈런), SK로맥(40홈런) 등 4명의 40홈런 타자가 기록됐다.

KBO리그에서 4명의 40홈런 타자가 나온 것은

1999년 이승엽(54홈런)·스미스(40홈런·이상 삼성), 로마이어(45홈런·한화)·샌더스(40홈런·해태) 이후 19년 만이다.

1회 집중력 싸움에서 밀린 KIA는 빠르게 ‘교체 카드’를 쓰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KIA는 2회말 임기영을 대신해 김세현을 마운드에 올리고, 수비 실수에 이어 타석에서도 유격수 땅볼로 물러난 최원준을 황윤호로 바꿨다.

하지만 김세현이 1사에서 정현의 2루타를 시작으로 연속 3안타를 맞으면서 0-5가 됐다. 김세현은 3회 선두타자 이진영에게도 중전안타를 맞는 등 1안닝 4피안타 1탈삼진 2실점으로 부진했다. 황윤호도 4회 송구 실책을 기록했고, 타석에서도 2개의 삼진을 기록하는 등 ‘교체 카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4번 타자 안지홍이 멀티 2루타로 2점을 만들며 분전했지만 5번 김주찬과 6번 나지완의 침묵 속에 KIA는 일찍 기울어진 승부를 되돌리지 못했다.

김민은 공·수에서 집중력 떨어진 KIA를 5안닝 5피안타 4볼넷 1실점으로 막으면서 시즌 3승에 성공했다.

‘고졸 루키’에게 승리를 헌납한 KIA는 27일 잠실로 LG와 ‘5강 싸움’을 벌인다.

/수원=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계현 “해태시절 추석 팬 이동에 10시간 걸렸어”

덕아웃 T 톡톡

▲왜 그럴까요 = 한승혁이 ‘마법사 사냥꾼’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한승혁은 지난 25일 kt 원정경기서 5안닝 4피안타 2볼넷 3탈삼진 1실점(비자책)의 호투를 하며 시즌 6승에 성공했다. 지난 8월 2일 롯데전을 끝으로 1군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승혁은 앞서 4번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투수가 됐던 kt전에 맞춰 재등장했다. kt전 강세에 대해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다”며 웃은 한승혁은 “밸런스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제구가 잘 됐다. 변화구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상황이 몰려도 내가 편안하게 공을 던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승혁은 올 시즌 kt와의 경기에 5번 나와 2.33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을 기록했다.

▲금방 와버렸어 = 타지에서 추석을 보낸 ‘호랑이 군단’. KIA는 추석 연휴 기간 대전과 수원 원정 경기를 치렀다. 22·23일 한화를 상대한 KIA는 대전에서 하루 더 머문 뒤 24일 수원으로 이동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교통 체증에는 시달리지 않았다. 김상훈 배터리 코치는 “차가 막힐까 봐 매니저가 출발 전에 화장실도 다녀오고 준비를 하라고 했는

데 버스 전용 차로로 오니까 금방 와버렸다”며 웃었다. 조계현 단장은 “해태 시절에 연휴 기간에 서울 원정이 걸린 적이 있는데 10시간 정도 차를 탔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짐 챙기고 야구를 하러 간 기억이 난다”고 선수 시절을 돌아봤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니까 = ‘가을 잔치’의 분수령이 될 한 주다. 25·26일 kt와 원정경기를 치른 KIA는 27일 잠실에서 LG와의 2연전을 시작한다. 주말에는 한화가 안방을 찾는다. 5강 자리를 놓고 2경기 차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LG와의 맞대결 이후 올 시즌 4승 9패로 약세를 보이는 한화를 만나야 하는 만큼 KIA에게는 한 경기 한 경기 방심할 수 없는 상황. 26일 kt와의 경기에 앞서 김기태 감독도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또 “이기는 게 중요하다”며 “(한승혁의) 밸런스가 좋아 보였다. 다음 기회도 주겠다”면서 선발진의 정상 로테이션도 예고했다. 하지만 26일 경기 패배로 계산이 복잡해졌다. 4위 넥센과 6위 LG가 이날 나란히 패했지만 KIA 역시 kt에 2-9로 지면서 4위 추격과 6위와의 격차 벌리기에 실패했다. 또 선발 임기영이 1회 4실점을 한 뒤 일찍 강판되면서 마운드 운영에도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수원=김여울 기자 wool@

두산, 한국시리즈 직행

86승 46패 정규리그 우승...6번째 우승 도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2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고 한국시리즈 티켓을 거머쥐었다. 두산은 지난 2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13-2로 승리했다.

86승 46패가 된 두산은 남은 12경기 결과와 관계 없이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두산의 정규시즌 우승은 단일리그제 기준 1995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통산 3번째다.

두산은 올해 통산 6번째 한국시리즈 우승(OB 시절 포함)에 도전한다.

앞서 두산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과 1995년, 2001년, 2015년, 2016년까지 5차례 우승했다.

지난해에는 정규시즌을 2위로 마치고 한국시리즈에 올랐지만, KIA에 밀려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쳤다.

정규시즌 1위 팀은 27번의 한국시리즈 가운데 23차례 우승했다. 확률로 따지면 85%다.

두산은 남은 12경기에서 8승을 거두면 2016년 자신이 수립한 한 시즌 최다승 기록까지 넘어선다. 2016년 두산은 93승 50패 1무, 승률 0.650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PS 마지막 모의고사

다저스, 29일 샌프란시스코전 원정 7승 도전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즌 7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29일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AT&T 파크에서 열리는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그의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이 선발 투수로 포스트시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에게 29일 샌프란시스코전은 정규시즌 등판이자,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치르는 최종 모의고사다.

류현진은 최근 두 경기에서 호투했다.

18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7이닝 4피안타 무

실점, 2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무실점을 올렸다.

두 경기를 통해 류현진은 다저스의 ‘포스트시즌 시즌 선발’ 자리를 예약했다.

다저스는 아직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하지 못했다. 류현진의 마지막 등판 경기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

류현진은 부상으로 5~7월을 쉬면서 올 시즌 규정 이닝을 채울 수 없다. 10승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올해 6승 3패 평균자책점 2.00의 놀라운 성적을 올렸다.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호투하면 7승과 평균자책점 1점대 진입에 성공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용대, 살아있네

배드민턴 코리아오픈 2년만에 복귀...남 복식 첫 경기 세계 16위 제압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30·요넥스)-김기정(28·삼성전기)이 2년 만의 코리아오픈 복귀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이용대-김기정은 26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8 빅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월드컵투어 남자복식 32강전에서 세계랭킹 16위 블라디미르 이바노프-이반 소조노프(러시아)를 2-0(22-20 21-16)으로 제압했다.

이용대는 2016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 김기정도 2017년도 국가대표팀이 꾸러지기 전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국가대표 은퇴 전 이용대는 유연성(수원시청)과, 김기정은 김사랑(밀양시청)과 호흡을 맞췄

나, 이번 대회를 앞두고 둘은 새롭게 남자복식조를 결성했다.

2년 만에 코리아오픈 무대를 밟은 이용대-김기정은 1게임에서 3-0으로 산뜻하게 출발했으나, 9-11로 역전당했다.

16-16에서 상대 실수를 유도하며 재역전에 성공했지만, 다시 추격당해 20-20 듀스를 허용했다. 그러나 상대 실수와 김기정의 스매시를 묶어 연달아 2점을 뽑아내며 1게임에서 승리를 거뒀다.

2게임에서 이용대-김기정은 15-11에서 15-14로 추격당하다가 결국 16-16으로 말미를 잡혔다. 하지만 이내 다시 20-16으로 달아났고, 상대 실수로 21점을 채우며 승리를 완성했다. /연합뉴스



역시! 이용대 국가대표 은퇴 2년 만에 국제대회로 돌아온 이용대(사진 왼쪽)와 김기정이 26일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8 빅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월드컵투어 본선 32강전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이바노프-이반 소조노프와 경기하고 있다. /연합뉴스